보도자료

미래를 개척하는 지식 공동체
서 울 대 학 교
SEOUL NATIONAL UNIVERSITY

보도 희망일	즉시		
배포일	2023. 10. 4.(수)	홍보담당	기획처 홍보팀(880-9072, 5054)
담당기관	서울대 경영대학	문의	김재연 (880-8597)

‘외국계 플랫폼 기업의 국내 매출 및 법인세 추정’ 학술세미나 개최

- “구글의 한국 매출, 국내 신고 대비 최대 30배 달해”
- 한양대 강형구 교수, 구글코리아 매출·법인세 추정치 발표
- 국내 매출<추정치>, 감사보고서<2022년> 대비 30배 추정, 법인세<추정치> 역시 26배 수준
- 전문가들, “구글은 국내서 네이버보다 많이 벌지만, 세금은 중소기업 수준”
- “공정 경제질서 필요성 강조, 조세 정책 시사점 제시”

□ 지난 2004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온라인 광고·포털 사업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린 글로벌 IT·플랫폼 기업 구글(Google)의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(Google Korea)의 매출 추정치가 감사보고서<2022년 기준> 대비 최대 30배, 법인세 추정치는 최대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전문가들은 “(구글코리아를 비롯한) 외국계 공룡 플랫폼 기업에 대한 조세 정의 실현이 시급하다”고 강조하고 있다.

□ (사)한국재무관리학회(회장 신용재, 한경국립대학교)는 ‘외국계 플랫폼 기업의 국내 매출 및 법인세 추정’ 주제로, 2023 추계학술세미나를 10월 4일(수) 서울대학교(LG경영관 120호실)에서 개최하였다. 이 학술세미나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 과세 및 우리나라 정부의 조세 정책과 관련된

이슈를 논하고자 개최되었다.

□ 주제 발표자인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재무관리학회 추계학술세미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밝혔다. 이 행사는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주최했으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(학장 김상훈) 주관 아래 개최됐다.

□ 앞서 강 교수는 올해 「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: 구글 매출 추정 및 세원잠식 사례연구를 중심으로」란 제목의 공동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. 이 논문은 구글코리아의 2021년 감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이 회사의 매출 및 법인세를 추정한 것이다.[1] 강 교수가 이 논문에서 밝힌 매출 및 법인세 추정치에 2022년 IT 산업 성장률(3.3%), 국내 경제 성장률(2.6%), 구글코리아의 영업수익 성장률(17.96%) 등 총 3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구글코리아의 매출액 및 법인세<2022년 기준>를 추정하였다.

□ 강 교수는 "총 3가지 시나리오에 걸친 분석 결과,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이 기업의 감사보고서 수치<2022년 기준, 3,449억 원>의 최대 30배<3차 시나리오 기준>인 10.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"며 "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역시 최대 4,420억 원으로 추정되어 실제 납부액<169억 원>의 26배에 이른다"고 강조했다.

□ 강 교수의 추정치대로라면 구글코리아의 매출액<1~3차 시나리오 최대 추정치 기준>은 국내 최대 IT 기업인 네이버(8조 2,201조원)<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>을 뛰어넘고, 법인세는 카카오(2,418억 원)<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>을 뛰어넘는다. 강 교수는 "구글코리아의 매출 및 법인세는 우리나라 최대 플랫폼 기업 이상이지만, 정작 감사보고서상 매출액 및 법인세는 중소기업 수준"이라고 강조했다.

□ 이날 행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"외국계 공룡 플랫폼 기업에 대한 조세 정의 실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"며 "국내 토종 플랫폼 기업이 불공정한 경쟁에

놓여있다” 고 입을 모았다.

□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“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 보다 크지만, 국내에서 얼마나 버는지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” 며 “규제를 논하기에 앞서, 시장에 대한 파악은 기본인데, 이것이 안 되고 있음을 이번 연구는 간명하게 보여준다” 고 주장했다.

□ 또한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“유튜브 · 검색엔진 등 구글코리아의 주요 사업은 이미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국내 기업을 압도하고 있다” 며 “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 경제 질서를 제대로 수립해야 국내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 경쟁이 가능하다” 고 조언했다.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역시 “정부가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제 질서를 조속하게 수립하지 않는다면 불공정한 경쟁에 놓일 국내 플랫폼 기업은 잠식될 수밖에 없다” 고 의견을 보탰다.

1) 이 논문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매출 및 법인세 추정치는 각각 4조~9조 원, 3,906억~9,131억 원<2021년 기준>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. 구글코리아가 감사보고서에서 보고한 매출액(2,900억 원)에 비해 14~31배 가량 높고, 법인세(130억 원)는 보고 수치의 1/30~1/70 수준에 불과했다.